

금감원장, 임원회의(10.29.) 당부사항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 이복현 원장은 금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금융권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임직원들이 아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고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업무에 임할 것을 지시하였음

(①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

-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리, 환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대내외 불안요인이 산적하여 연말로 갈수록 돌발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당부하였음
 - 美대선, 지정학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이 겹부되어 주가·금리·환율 변동성이 예상치를 벗어나 거액 손실 또는 유동성 충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
 - 고환율·고금리 여파가 누적된 상황에서 부동산 PF 및 취약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실이 중소기업·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을 가정한 대비책 마련
 - 특히 부동산 PF의 경우, 기 발표한 일정에 따라 1·2차 사업성 평가 및 정리·재구조화 등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나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 정리대상 사업장은 신속하게 경공매, 상각 등을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이 가능한 정상,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관리

(②은행권 내부통제 관련 엄정한 검사 필요)

-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은행 등의 금융사고와 해외 현지법인 투자 및 운영 부실 등에 대해 정기검사 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음

- KB금융 관련 반복적인 지적*은 평판위험(Reputation Risk)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리스크 관리에 안일함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 해외 현지법인 투자결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 과정의 문제, 콜센터 업무위탁 관리 등

- 우리금융의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수준이 現 경영진이 추진 중인 외형확장 중심의 경영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

* 조직문화의 기저를 이루는 파벌주의 용인, 금융사고에 대한 안일한 인식,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경영체계 지속 등으로 건전성 및 내부통제 약화를 초래할 위험 등

- 이러한 운영리스크와 건전성 문제 등이 그룹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

(③취약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은행 점포* 및 ATM**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주요 금융감독 어젠다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점포수(개) : ('19말) 6,738 → ('20말) 6,427 → ('21말) 6,121 → ('22말) 5,831 → ('24.6말) 5,724

** ATM수(개) : ('19말) 36,382 → ('20말) 33,944 → ('21말) 31,718 → ('22말) 29,451 → ('24.6말) 27,347

- 특히 연령, 장애, 지역 등에 따른 제약 없이 누구나 금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음
-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23.4월)의 충실한 이행을 지도하고, 은행간 공동점포, 공동ATM, 이동점포 등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체수단 강구 및 활성화 유도
-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교육 지속 확대
- 각 금융회사의 장애인 업무매뉴얼과 인프라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금융거래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담당부서 : 기획조정국장	김성욱 (☎ 02-3145-5900)	팀장 박상만 (☎ 02-3145-5940)
금융시장안정국장	이진 (☎ 02-3145-8170)	부국장 김정훈 (☎ 02-3145-8180)
은행검사1국장	김형순 (☎ 02-3145-7050)	팀장 박진호 (☎ 02-3145-7060)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이길성 (☎ 02-3145-5700)	팀장 박성주 (☎ 02-3145-5680)